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11호
2017. 5. 29

정책동향

- 건설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실태 비교(2)
- 중소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시장동향

- 미분양관리지역, 주택 공급 물량 조절 위해 8차에 걸쳐 지정

산업정보

- M&A를 통한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 세계 건설기업의 4차 산업혁명 인식과 대응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건설업, 양질의 일자리로 신규 인력 키워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실태 비교(2)¹⁾

-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개념으로 바뀌어, 중소 건설업 육성 위한 정책 필요 -

■ 중소기업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바뀌어

-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기준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정·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건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도 종전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단일 기준으로 변경됨.
- 특히, 건설업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에서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미만으로 변경됨.

<표1>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 전후 비교

구 분	종전 (~2015)	개편 후 (20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 수 혹은 자본금(매출액)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소기업 그룹	2그룹 (50-10명)	5그룹 (120-80-50-30-10억원)

자료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 6. 25).

■ 새로운 기준 적용 시 중소 건설업의 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해

- 중소 건설업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건설업체 수에서 중소 건설업체 수는 구(舊)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新) 기준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건설업체에서 중소기업의 업체 수 비중은 99.3%에서 99.7%로 0.4%p 증가함. 업역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98.6%에서 98.4%로 0.2%p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99.4%에서 99.9%로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 건설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건설업에서 중소 건설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구(舊)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新) 기준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건설업체에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54.9%에서 55.1%로 0.2%p 증가함. 업역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38.7%에서 32.4%로 6.1%p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82.7%에서

1) 본고는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나경연·최은정(2017),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내용 중 일부를 요약·정리함.

93.9%로 1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소 건설업의 종사자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건설업에서 중소 건설업이 차지하는 종사자 수도 구(舊)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新) 기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건설업체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71.8%에서 83.3%로 11.5%p 증가함. 업역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60.7%에서 62.7%로 2.0%p가, 전문건설업은 76.8%에서 92.7%로 1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서 중소 건설업체 종사자 수 비중이 증가함. 특히, 전문건설업의 중소 건설업체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두 업종 모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업 규모가 작은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종합해보면, 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모든 측면에서 구 기준 대비 신 기준의 중소 건설업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2> 건설업 중소기업 비중 변화

구분		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 수	구 중소기업 기준	99.3%	98.6%	99.4%
	신 중소기업 기준	99.7%	98.4%	99.9%
	중소기업 비중 차이	0.4%p	-0.2%p	0.5%p
매출액	구 중소기업 기준	54.9%	38.7%	82.7%
	신 중소기업 기준	55.1%	32.4%	93.9%
	중소기업 비중 차이	0.2%p	-6.1%p	11.2%p
종사자 수	구 중소기업 기준	71.8%	60.7%	76.8%
	신 중소기업 기준	83.3%	62.7%	92.7%
	중소기업 비중 차이	11.5%p	2.0%p	15.9%p

주 : 중소기업 신·구(新舊) 기준을 2015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도출한 중소기업 비중임.

■ 건설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업종을 벗어나 중소 건설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시 필요

- 분석 결과, 전문건설업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에서도 중소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중소 건설업 = 전문건설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 건설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업종과 산업을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각 하에 중소 건설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시가 필요함.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중소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 『기업활력법』, 『채무자회생법』 등 구조조정 제도 활용해야 -

■ 기업구조조정 제도에란 일시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제도

- 기업구조조정 제도에란 계속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나 일시적 매출 감소 및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거나 청산가치가 높은 부실기업의 제거를 돕기 위한 제도임.
-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의 재무·영업·인력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최적화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 『기업활력법』, 『채무자회생법』을 활용하여 일시적 경영난 해소 가능

- 일시적 매출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가능함.¹⁾
 -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모토로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조직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사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금융 혜택, 고용안정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5월 현재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 7개 분야 19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건설기업의 활용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함. (19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로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함)
-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의 장점을 모아 지난 2017년 3월 시행된 P-Plan 회생 절차(프리패키지 제도)는 건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표 1> 참조).

- 공적·사적 구조조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워크아웃은 신용 공여액을 기준으로 500억 이

1)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사적·공적 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적용을 받으며 500억 미만 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의 적용을 받음.

<표 1>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분		적용 대상	특징
공적 구조조정	2006년 법정관리 『통합도산법』 ²⁾	- 부실기업	- 1962년 제정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통합으로 지난 2006년 제정 - 법원 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2016년 『기업활력법』	- 과잉공급 분야 기업	-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
	2017년 『채무자회생법』	-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 기업	- 채권자 및 채무자 중심 - 워크아웃이 전제되지 않음 - 금융 및 법률 지원
	1998년 워크아웃 2001년(한시법.2018.6.30.까지 유효)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부실(징후)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기업 대상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 금융 지원으로 한정
사적 구조조정	2004년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 부실(징후)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기업 대상 - 채권은행 협약에 기초 함 - 공적구조조정에 비해 기업 신뢰도에 대한 영향이 덜하나 법적 근거가 없음
	M&A(기업인수합병) ³⁾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NPL(부실채권시장)	-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및 대신 F&I가 국내시장의 약 55% 점유 (2016년 6월 기준) - 자산운용사,펀드, 일본계 저축은행 등의 시장 진입 활발	
	만료제도 2008년~2011년 한시 운영 대주단협약	- 영업력 또는 인지도를 갖춘 건설사 및 연관 시행사 - 채권자 주도	
	2008년~2011년 한시 운영 중기 패스트트랙	- 신용위험평가 A, B 등급의 중소기업 - 채권자 주도	

자료 : 금융위원회 / 임기수(2016) /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3) 자료를 참조로 재구성.

- 건설기업의 수주 물량은 내년 이후 본격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부채 축소 및 신기술 개발, 재무관리 역량 강화 등 다가오는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더불어 건설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졌을 경우 활용 가능한 구조조정제도를 숙지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2) 공적 구조조정 제도로 외환위기 이전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이 있었으나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정비됨.

3) 황문성·강기우(2009)는 국내 M&A 시장은 일부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M&A 연관 산업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거래 규모 및 내용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

미분양관리지역, 주택 공급 물량 조절 위해 8차에 걸쳐 지정

- 지역 내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 및 지역 기준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 있어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 주택 공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임.
 - 정부의 「8. 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일정 요건¹⁾에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함.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택지 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함.²⁾
 - ※ 서류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함.
 - 미분양관리지역인 경우 예비심사에서 ‘미흡’, 본심사 재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거나 예비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PF보증 및 분양보증 보증 심사가 거절됨(<표 1> 참조).

<표 1> 예비 심사 및 재평가에 따른 본심사 조치사항

예비심사		본심사	
구분	등급	재평가 등급	조치사항
실시	미흡	미흡	• (PF보증) 보증심사 거절 • (분양보증) 미분양관리지역인 경우 보증심사 거절 - 그 외 지역 : 신용보강, 자금관리 등 조치 검토 후 보증취급여부 결정
	양호, 보통	미흡	• (PF보증, 분양보증) 신용보강, 자금관리 등 조치 검토 후 보증취급여부 결정
	미흡	양호, 보통	• (PF보증, 분양보증) 보증취급 가능
미 실시	-	-	• (PF보증, 분양보증) 보증취급 거절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안내.

- 2016. 9. 30. 제1차 공고일로부터 2017. 4. 28. 제8차 공고일까지 수도권(서울 제외)은 7~9개 지역, 지방은 16~22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 광주시·남양주시³⁾·안성시·평택시이며, 지방은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임.

1) ① 미분양증가, ② 미분양 해소 저조, ③ 미분양 우려, ④ 모니터링 필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함.

2) 공공택지로 택지 공급자(LH 등)가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 예비심사 신청 후 결과 통지 전에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함.

3) 제2차부터 제8차까지 공공택지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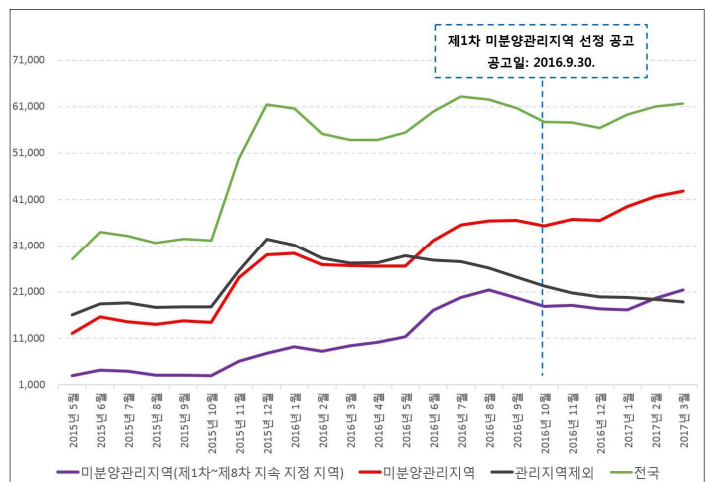
- 인천 연수구는 제5차 공고에서 해제되었다가 제6차부터 다시 지정되기 시작함.
- 경기 고양시·시흥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은 제5차 공고부터 지정 해제됨.
-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는 제5차 공고부터 새로 지정되었고, 경기 화성시, 충북 보은군은 제6차 공고부터, 제주 제주시는 제8차 공고부터 새로 지정됨.

■ 미분양관리지역이 전국 미분양 증가세 주도

- 2017년 3월 전국 미분양은 61,679세대이며 제1~8차까지 계속 지정된 관리지역의 미분양은 21,421세대(인천 연수구 포함)로, 관리지역 제외 지역(미분양 18,869세대)을 추월함(<그림 1> 참조).
- 관리지역 제외 지역의 미분양은 2016년 5월(28,861세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관리지역은 42,810세대(2017년 3월 기준)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69.4%를 차지함.
- 제1~8차까지 지속 지정된 관리지역의 미분양은 2016년 8월(21,379세대) 이후 2017년 1월까지 17,106세대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

<그림 1>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추이

(단위 : 세대)



자료 : 국토교통부.

※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적색)은 제8차 지정 지역을 기준으로 함.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지역 내 분양 시장 여건 반영 필요

- 동일 시·군·구 지역 내에서도 분양 시장 온도차가 클 수 있어 선정 기준 및 지역 기준을 하위 시장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 있음.
- 남양주의 경우 화도읍은 미분양 적체 지역인 반면 다산 신도시는 분양 성적이 우수한 편임.
 - ※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L사업' 5개 단지는 현재까지 총 198세대가 미분양임.
 - ※ 다산자금 지구 'S단지'는 1,282세대, 진건읍 'D단지'는 967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음.
-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 특정 단지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 및 지역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 있음.

김천일(부연구위원 · ckim@cerik.re.kr)

M&A를 통한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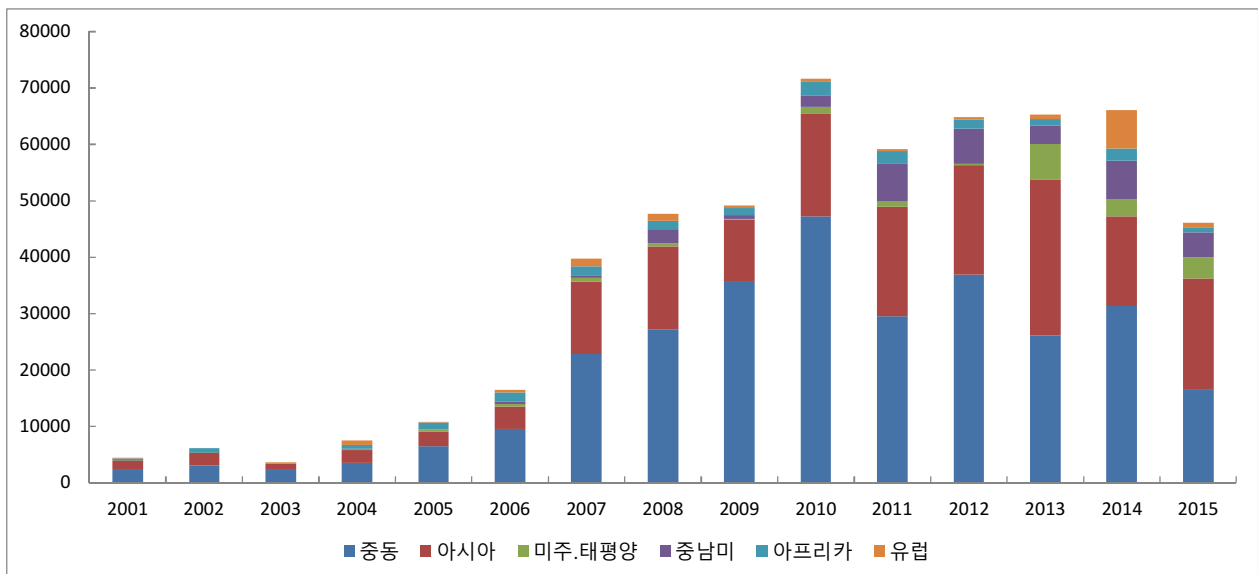
- 명확한 전략적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과 핵심인재 유지를 포함한 PMI¹⁾ 과정 필요 -

■ 해외건설시장 다변화와 M&A를 통한 신규시장 진출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2010년에 716억 달러를 정점으로 기록한 후 2014년까지 6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461억 달러로 급감함(<그림1> 참조).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동지역의 수주 비중이 대략 50% 이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아시아지역 비중보다 축소됨.
 - 수주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유 가격 하락임.
- 우리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며,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또는 M&A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수주 감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면적, 인구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 건설시장은 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그림 1>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1) PMI(Post Merger Integration)는 인수·합병 후 대상기업의 사후관리 및 기업문화 통합 과정을 의미함.

■ 중국 CCCC²⁾의 호주 John Holland 인수 사례

- 2015년 4월 중국의 CCCC는 자회사인 CCCI³⁾를 통하여 호주 건설기업인 John Holland를 1.15백만 호주달러에 인수함.
 - John Holland는 1949년 멜버른에서 설립된 호주 3번째 규모의 건설회사이며, 인프라 건설과 민간 투자사업(PPP) 사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철도 시스템, 터널 엔지니어링, 물·환경 플랜트, 원유 인프라 건설 등에 전문성이 있으며 호주에서 유일하게 철도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민간 기업임.
- CCCC의 자금력과 글로벌 마켓 채널에 John Holland의 기술력 및 브랜드를 결합하여 5년 내에 John Holland를 2배 이상 규모로 성장시킬 목표를 제시함.
 - John Holland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바탕으로 호주⁴⁾ 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북미 등 선진국 인프라 건설시장 진입과 PPP사업 투자 역량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음⁵⁾.

■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 목표 설정, 핵심인재 유지 및 PMI 과정이 중요

- Bain & Co. (2015)는 성공적인 M&A를 위한 5가지 요소로 ① 기업의 축적된 M&A 경험, ② 구체적인 시너지 창출전략, ③ 철저한 실사 및 가치평가, ④ 뛰어난 통합(PMI) 전략, ⑤ 집중된 실행 스케줄을 제시함.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M&A Integration Survey(2013)는 M&A를 경험한 300여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성공 요인과 달성 정도를 조사함. 약 85%가 전략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무 목표 달성(78%)과 시너지 창출(75%)이 그 뒤를 이었지만, 달성 정도는 미진했다고 평가됨.
 - 핵심인재 유보 항목은 약 6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위 항목들 보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Bain & Co.가 250여개 기업에 대하여 M&A에 실패한 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① M&A 어려움의 과소평가, ② 시너지 효과의 과대평가, ③ 경영진 통합과 핵심직원 유지 실패, ④ 실사 및 가치평가 과정에서의 실수 순으로 나타남.

박수진(연구위원 · jin@cerik.re.kr)

2)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td.

3) CCCC International Holdings Ltd.

4) 2014년 11월에 호주와 중국 간에 체결된 FTA로 인하여 중국 건설노동자가 호주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됨.

5) CCCC는 2010년에 미국 F&G를 인수하여 해양플랜트 사업부문을 강화하기도 함.

세계 건설기업의 4차 산업혁명 인식과 대응

- 26개국 397개 건설기업 대상 설문 조사 분석 결과 -

■ 건설기업도 쏠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유인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

- PwC는 글로벌 산업4.0 설문 조사¹⁾를 통해 주요 산업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음.
 - 4차 산업혁명은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조달 체계 안에서 수평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수직적 밸류 체인과 관련된 본질적 기능(essential functions)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집중하도록 만들.
 - 또한 디지털 기능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개선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 건설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황

- 4차 산업혁명은 건설기업의 운영과 전략적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고 평가함.
 -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연매출의 5%를 디지털 운영 솔루션(digital operations solutions)개발에 투자할 계획임.
 - 69%의 건설기업이 수직·수평적 밸류 체인의 통합,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상품 개발과 엔지니어링,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분야는 향후 5년 안에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디지털화를 통해 건설기업은 향후 5년 동안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음.
 - 건설기업은 2.9%인 산업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연간 2.7%의 매출 증가와 연간 3.4%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특히 산업용 인터넷과 센서의 확대는 장비 모니터링과 보수, 에너지 절감, 자재 관리와 배치, 에너지 절감,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건물 기능과 설계 관련 데이터는 프로젝트 계획과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1) PwC(2016). Industry 4.0: Building the digital enterprise.

협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함.

- 건설기업은 향후 5년 동안 10%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할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였음. 세부 내용은 현재 상품 포트폴리오의 디지털화(44%), 새로운 디지털 상품 포트폴리오(39%), 외부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49%), 외부 소비자를 위한 빅 데이터 분석 서비스(33%) 등임.

● 4차 산업혁명은 기업으로 하여금 조직의 구성 방식과 경영 체계를 선택하는 데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함.

- 건설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함에 있어 외부적(external) 시장 요인보다, 문화, 조직, 리더쉽 등과 같은 내부적(internal) 이슈와 관련된 장애 요인에 집중하고 있음.
- 디지털 문화와 교육 부족(53%), 불명확한 디지털 투자의 혜택(41%), 높은 재정적 투자 조건(35%), 부족한 역량(34%), 명확한 디지털 운영 비전과 경영진의 리더쉽 부족(33%), 기술 인프라 확장 부족(18%)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평가됨.

● 다양한 소스(source)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분석 역량(advanced analytics capabilities) 보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업은 현재 40% 수준인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향후 5년 안에는 72%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건설기업의 19%만이 고급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급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하려는 건설기업에게 탄탄한 조직(robust organization)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요인임.

- 기업 내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인력 고용(39%), 별도의 조직에 데이터 분석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37%),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데이터 분석을 부여하는 방식(9%) 등임.

● 대규모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설기업이 예상하는 투자액 회수 기간은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임.

- 설문 대상 건설기업의 56%는 향후 2년 안으로 투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5년의 투자회수 기간을 예상한 기업은 35%,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9%였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정부 및 건설관련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10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지원과 주관, '세계 건설시장 신전략지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산업정책연구실 김민형 선임연구위원 참여
5. 11	경기도	• 주택정책팀 주관, '주거정책심의회위원회'에 경영금융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5. 12	국가핵융합연구소	• 미래전략실 주관,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사업 PM 전문가 자문회의'에 기술정책연구실 최석인 실장 참여
5. 16	서울시	• 주택정책과 주관, '서울시 청년주거 과제 착수보고,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과제 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김천일 부연구위원 참여
5. 23	국토교통부	• '2017년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사업 회의'에 기술정책연구실 손태홍 연구위원 참여
5. 23	경기도	• 공동주택과 주관,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참여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연구자료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중소기업 비중 변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중소기업 판정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에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신규(新舊)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세부 업종별 시장 규모, 추이, 비중 등 시장 구조의 비교 검토를 통해 건설업 내 중소기업 비중 변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부 업종별 시장 규모 및 성과 변화 등을 분석하여 향후 중소 건설업 육성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됨. • 개정된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전체의 시장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건설업체 수에서 중소기업 수의 비중은 구 기준 대비 신 기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 업체 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종사자 수의 경우는 종합건설업은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증가하였음. 업체당 매출액도 종합건설업은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중소 건설업(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의 비중을 전체 건설업과 비교 도출하고 과거와 현재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에 있어서 구 기준 대비 신 기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 건설업을 종합과 전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의 비중(업체 수, 매출액)은 구 기준 대비 신 기준에서 모두 감소하였고, 전문건설업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장성과 지표를 통한 비교에서는 전체 건설업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급여액, 업체당 매출액 등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중소 건설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과당경쟁, 청년층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음. • 종합건설업의 98.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인식과 산업과 업종을 떠나 중소기업의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공감대 및 정책을 토대로 건설업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함.

건설업, 양질의 일자리로 신규인력 키워야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약 11%에 달하며 올 1·4분기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전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 고용산업인 건설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건설업 역시 향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이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 감소, 해외 건설시장의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며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 관련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은 지난해보다 평균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 평균인 5%보다 2배 이상 감소 폭이 높은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점점 증가해 지난해 8월 기준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건설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감소와 비

정규직 고용 증가는 현재의 작업 상황에 적합한 기술 사용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낮은 조직 애착심, 높은 이직률 등으로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지 못함으로써 인력 단절을 초래해 국내 건설산업의 품질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건 완화, 고령화가 심각한 건설 현장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건설업체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이들에게 고용 안정과 직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소위 ‘피플 비즈니스’라 불리는 건설업의 특성상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와 건설업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서울경제, 2017. 5. 8〉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